

매트릭스3 레볼루션

그래픽으로 완성된 '회염세계' 오락 요소에 불교메시지 가득 상반된 반응속 신문화 창조 평

■ 지난 1999년 영화 '매트릭스' 1편이 개봉했을 때의 흥분과 감격을 기억하는가. 4년 여정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매트릭스의 최종편 '매트릭스 3: 레볼루션'이 11월 5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동시에 개봉됐다. 전작 시리즈들이 주인공들의 대사와 상황설정을 통해 불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매트릭스 3'는 완성도 높은 그래픽을 통해 불교의 '회염세계'를 시각화 하는 성과를 낳았다. 비록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또 다른 눈(혜안)을 통해 빛으로 가득 찬 기계도시를 바라보는 네오의 시야를 보여주는 장면 등이 바로 그것.

매트릭스 시리즈는 화려한 특수효과 등의 오락적 요소에 동·서양의 철학을 조화시켜 적잖은 사회문화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동양사상에 심취한 워쇼스키 형제 감독의 영향으로, 영화에 나타난 불교적 메시지에 대한 해석이 전 세계 불자들 사이에서 회자됐다.

개봉 첫 주 세계 영화시장에서 1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린 최초의 영화라는 기록을 남기는 등(매트릭스 2)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 자리한 매트릭스. 시리즈마다 논란과 화제를 일으키며 새로운 문화형태를 창조해내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매트릭스의 구원자, 네오.

'빛과 어둠' 깨달음과 현상계 둘이 아니다

불교적 세계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상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으므로 결국 허상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모티브이다. 보는 것, 먹는 것, 즐기는 것 모두가 '매트릭스'라는 기계 세상이 만들어 낸 허구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네오는 고통에 휩싸인다. 이는 사바세계는 '고(瞞)'라는 부처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말초적이고 현상적인 것에만 몰려싸여 살다 혜안을 통해 바라본 중생계는 무명의 괴로움이 가득한 공간, 즉 '매트릭스'다. 3편에 이르러 동일시되는 '빛과 어둠'은 깨달음의 세계와 현상계의 공간이 둘이 아님을 암시한다.

불성의 발견
"선택을 하는 것은 결국 너 자신이고, 그것을 믿는 것도 네 자신이다." 1편에서부터 주인공 네오(혹은 미스터 앤더슨)는 "빨간약 좋까, 파란약 좋까"를 시작으로 끊임없는 선택(자유의지)의 기로에 선다. "내 안의 가능성(불성)을 믿고 선택할 뿐"이라던 주인공은

마침내 자신의 존재이유를 깨닫는다. 불교에서는 일체만물에 불성이 있으니 내 안의 부처를 믿으라 독려한다. 영화의 말미에서 오라클이 네오와의 재회를 언급했던 것은 누구라도 '그(the one)', 네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적 자아관인 것이다.

가장 불교적인 캐릭터는?
깨달음의 과정에 있다는 점에서 주인공 네오를 가장 불교적인 캐릭터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3편에 이르러까지 네오의 구도에 마구니 역할을 했던 스미스 요원도 '매트릭스' 등장인물 중 최고의 불교도(?)다. 스미스 요원은 네오에게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1편), 공존의 의미(2편), 집착(3편)이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기 때문. 특히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3편의 빛속 격투신에서는 화려한 액션 뿐 아니라 스미스 요원이 네오에게 던지는 대사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기자 hansang@buddhapia.com



'매트릭스' 속에 나타난 불교사상

전문가 리뷰: 영화평론가 하재봉

■ 워쇼스키 형제가 감독한 '매트릭스' 3부작의 마지막 '매트릭스3 레볼루션'이 전 세계 동시 공개되면서, 지난 1999년 5월 시작된 '매트릭스'의 대장정이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시작이다. '매트릭스'가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과연 진실된 것인가, 내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매트릭스'를 한 편의 할리우드 오락영화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문화적 핵심에 자리 잡게 한 이유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매트릭스' 속의 사상은, 기독교적 구원과 희생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불교의 선사상, 회합비극, 플라톤의 동굴, 데카르트 회의론, 보들리아르의 시뮬라시옹 개념 등 잡다한 동·서양 문화가 혼합되어 있다. 그러나 그 내부를 살펴보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불교 사상의 핵심과 만난다. '매트릭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인연설, 윤회, 마음의 문제, 무의 개념, 해탈과 깨달음의 추구 등이다.

스미스는 2편에서 네오와 만나 이렇게 얘기한다. "외형은 속임수이고 우리의 존재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실은 자유롭지 못해서야. 이어나 목적은 부정할 수 없지. 우리 목적이 없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우린 너 때문에 존재한다"의 존재가 너 때문이며, 결국 너와 나는 동일하다는 스미스의 인식은, 3편에서 오

라클이 네오를 보고 "스미스가 곧 너야"라는 말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네오와 모피어스는, 매트릭스의 원천인 소스로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는 키메이커를 찾기 위해 정보거래상과 마주한다. 정보거래상은 "이 세상에 불변하는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인과관계,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라고 말한다. 그것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맞닿는다. 모든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식,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다는 것은 3편의 핵심 화두인 "시작이 있는 곳에 끝이 있다"로 선명해진다.

이것은 업의 변용에 다름 아니다. 욕망과 집착, 괴로움에서 눈을 떠서 진실 된 자신의 마음을 찾고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러는 불교의 교리는 '매트릭스'에 그대로 적용된다.

3편의 마지막에서 기계의 심장부로 진입한 네오가 평화를 외치며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조건으로 타협을 시도하는 것도, 끝고다 언덕에서 예수의 마지막 죽음을 삼키시키지만, 기독교적 희생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중도의 불교사상과 더 가깝다. 정립과 반정립의 극단을 종합하여 양쪽을 다 살려내는 것이 불교의 중도이다. 그것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실천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 시리즈를 마감하는 대원전의 막은 네오의 중도사상에 의해 끝난다.



불교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명대사들

1편 : 매트릭스(Matrix)
- 모피어스: "마음을 자유롭게 해면, 몸은 저절로 따라오지. 모든 것을 버리게. 두려움, 의심, 불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네."
- 스폰 걸: "스폰을 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불가능해요. 대신 진실을 깨달아야 해요. 스폰은 없어요. 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지요. 당신의 마음이 휘면, 스폰도 휘어져요."
2편 : 리로디드(Matrix: Reloaded)
- 오라클: "자네는 선택하기 위해 여기(매트릭스)에 온 게 아니야.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깨닫기 위해 온 거지."

3편 : 레볼루션(Matrix: Revolution)
- 오라클: "시작이 있는 모든 것은 끝도 있다"
- 스미스 요원: "너희들 인간의 삶의 목적은 '꿈(죽음)'을 위한 것일 뿐이지. 왜 포기하지 않는 거야? 모든 것이 환상이고 망상이며 집착일 뿐인데."
한상희 기자



건강 100% 적중

냄새를 완전 제거하여 놀라운 효능을 갖춘 식품이면서 "여성생활에도 으뜸"이 되고 있는 토종마늘환(丸)

토종마늘은 예로부터 '일해백리'의 식물로 불려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백가지 이로움을 짓고 있는 뛰어난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때문인데, 이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활성화 시켜 줍니다. 마늘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몸에 흡수된 당질을 에너지로 바꾸어줌으로써 피로감을 없애주고 온몸의 기능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정력,간기능시력을 높여주고 손발냉증, 변비, 오통이 사라지며 강한 항암작용 및 다이어트, 미백효과, 중풍, 신경통, 당뇨병 등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최근의 연구결과 마늘의 주요성분인 알리신에 암세포증식을 억제하는 항암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장 · 강정 · 식욕부진 · 정장 · 변비 · 보온 · 항균 · 구충 · 정신안정 · 이뇨 · 열안정 · 각기 · 신경통 · 신장마비 등에 효험이 있다
- 이시진의 본초강목 -

100% 토종마늘은 무엇이 다른가?

- 건강식 또는 양념으로 써온 식물로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한다.
- 장(腸)에서 흡수가 잘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한다.
- 세포내 침투가 잘되고 성기능을 강화 시킨다. 혈순환이 잘된다.
- 항암작용을 한다. 성인병 예방과 정력 증강에 효과가 있다.
-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정상치로 끌어올린다.
- 비타민C와 섭취하면 당뇨에 효과가 있다.
- 인체내 지방을 분해해 비만 예방에 특효가 있다.
- 만성 감염에 효험이 있다.
- 비만, 심장병 예방에 특효.
-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 표준소비자가 특별분할 : 42,000원×4개월= 168,000원(6개월분)
◎ 공주양잠농업협동조합 직거래 사업단 02)755-9821, 080-200-4545